

### 전주 한 초등학교서 교원 폭행사건 발생

# 교감 뺨 때린 학생 학부모 고발조치

#### 전북교육청, '교육적 방임 의한 아동학대' 혐의 피해학급 학생·교원, 집단상담치료·치유 지원

####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교원단체들도 성명 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와 교감에 대한 욕설과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의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날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주 A초등학교 3학년 B반은 수시로 교실을 이탈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교폭력 가해와 교권침해 행위가 지속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과 보호자 자신의 심리치료를 강하게 거부해 왔다.

전북교육청은 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또 다른 학생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인 1조의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학급 학생들을 위한 집단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통이 떨어진 상태에서 촬영된 동영상에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동이 벌어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같은 학급 학생들에 대한 집단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속하게 열어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와 치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통합적 지원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관할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치료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 도내 교원단체들이 성명을 냈다.

먼저 전교조전북지부(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담임교사와 교감 그리고 해당 학생이 출석했던

학급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학생의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과 담임교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도 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무단 이탈 및 폭행을 일삼는 학생과 이를 방관하는 학부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를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행위도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급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학생의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과 담임교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도 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무단 이탈 및 폭행을 일삼는 학생과 이를 방관하는 학부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를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행위도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북자치도교육청

#### 교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5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등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본청을 비롯해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직원 150여 명이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홍수정 대표(행정과 갈등연구소)는 '교육감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의사소통의 원리와 기술'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이날 교육은 갈등관리 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또 조직에서 갈등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전달식 교육이 아닌 강사와 참여자 간 소통 중심의 강의를 통해 갈등관리 기법을 배우고, 갈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감정평가 연계전공 한국부동산원과 채용설명회

전북대학교 감정평가 연계전공은 지난 4일 부동산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공동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용설명회는 최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한 감정평가 연계전공 특강에 이은 것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취업과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서에서 직접 나와 비전과 사업 분야 등을 소개하고, 채용방식과 지원자격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입사한 직원들이 직접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전하는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이날 설명회 이후 한국부동산원은 전북대 감정평가 연계전공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채용설명회 및 특강 프로그램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 하반기에도 채용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포상 격려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 선수 격려

#### 전북자치도교육청, 포상 격려회 열어... 전북 총 67개 메달 획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5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포상 격려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수한 기량을 뽐낸 선수와 지도자, 학교장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29개, 동메달 24개 등 총 6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육상·수영·체조 등 기초종목과 배구·핸드볼·테니스·소프트테니스 등 단체종목에서도 선전했다.

특히 여자 12세 이하부 단체종목(핸드볼) 상위 입상은 선수 수급과 운영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단체종목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 희소식이 됐다.

이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종목별 강화 훈련비와 메달 유망 종목 합동 강화 훈련비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북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이 큰 영향을 끼쳤다.

서거석 교육감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 선수들 모두 고생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자신의 진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단체종목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 희소식이 됐다.

이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종목별 강화 훈련비와 메달 유망 종목 합동 강화 훈련비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북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이 큰 영향을 끼쳤다.

서거석 교육감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 선수들 모두 고생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자신의 진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 호원대 스포츠단, 대학운동부 평가 전국 124개 대학 중 최종 8위

#### 11년 연속 지원받아

호원대학교 스포츠단은 '2024 대학운동부평가 및 지원사업'에서 전국 124개 대학 중 최종 8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4 대학운동부평가 및 지원사업'은 한국대학스포츠총협회(KUSF)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있으며, 엘리트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대학운동부 종합평가로 2014년부터 11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4 대학 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은 4개 평가 영역, 14개 평가지표, 세부 평가 항목 42개로 구성된 대학 운동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대학 운동부 평가를 진행해 운동부 운영에 대한 정량, 정성, 대학실사, 종합평가 등 4단계 평가 과정을 거쳐 총 124개 대학에 61억원을 지원한다.

대학별로 최대 1억5,300만원부터 최소 1,000만원까지로, 평균 4,900여만 원이다.

이에 호원대는 이번 사업으로 전국



호원대학교 스포츠단은 '2024 대학운동부평가 및 지원사업'에서 전국 124개 대학 중 최종 8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7일 열린 '2024학년도 호원대학교 스포츠단 출정식'.

8위에 선정돼 9,800만원을 확보,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훈련비, 훈련용품, 대회출전비 지원, 엘리트 스포츠 진흥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명찬 스포츠단장(스포츠경영학과 교수)은 "평가를 잘 받은 만큼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선수들과 훈련에 만전을 기해 학교의 명

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원대학교 스포츠단은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에 11년째 연속 선정됐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할 수 있다! 너 땀에 녹는다



##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심우초 김강현>

## ‘나는 너의 소중한 베타’ <서신중 이지호>

### 전북자치도교육청, ‘따뜻한 말 한마디’ 공모 수상작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따뜻한 말 한마디'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공모전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 친화적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언어문화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됐다.

공모 결과 총 418점의 학생 작품이 접수, 심사를 거쳐 초등 16점, 중등 16점 등 총 32점을 최종 선정했다.

초등부 최우수상은 삼우초등학교 6학년 김강현 학생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가, 중등부 최우수상은 전주서신중학교 1학년 이

지호 학생의 '나는 너의 소중한 베타'가 각각 차지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개최된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교육감상과 소정의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수상작은 10~21일까지 분량 참조나래에 전시하고, 향후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제작, 배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바른 언어 습관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사용 문화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에서 전북농촌유학 상담(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 “전북으로 농촌유학 오세요”

#### 전북자치도교육청,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참여 희망 학생·학부모들 대상 맞춤형 상담·정보 제공

"전북으로 농촌유학 오세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에서 전북농촌유학 상담(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전북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농촌유학을 하는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특히 농촌유학 개요와 프로그램 소개, 참여 방법 등이 상세히 담겨 있는 안내 책자와 홍보 영상을 준비해 서울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전북농촌유학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도록 했다.

이날 순창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고추장을 나눠 주기도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현재 10개 시군, 23개 학교에서 농촌유학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유학 모집 시기를 연 2회로 확대해 2학기 한 차례 더 유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전북농촌유학은 도시지역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전북농촌유학의 인지도를 높여 더 많은 학생이 전북으로 농촌유학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원광대, 웹 클라이언트 개발 강좌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SW벤처인재양성사업단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 일환으로 자바 풀스택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웹 클라이언트 개발 강좌를 지난달 총 6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실무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등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인 React.js와 Vue.js 활용법

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의 핵심 원리 이해 및 React.js와 Vue.js를 활용한 웹 제작 방법 습득을 교육목표로, 학생들은 웹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면서 웹 개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했으며, 코딩부터 기능 구현까지 개인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실용적인 코딩 경험을 쌓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켰다.

/익산=이재훈 기자